

‘추석, 한가위 나눔 한마당’

불교계 복지관 후원물품 일제접수

추석을 한달 여 앞둔 부산 불교계 복지관들이 매년 이어온 ‘한가위 나눔 한마당’의 준비가 한창이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어려워진 경제사정에 불자들과 시민들의 후원이 절실하다.

늘기만바우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이사장 지현, 051-265-9471)은 지역 내 한부모가정에 쌀,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세대에는 명절음식 등을 라면, 과일, 떡과 함께 담은 종합선물세트를 매년 전달하고 있다.

불국토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사장 해홍, 051-628-6737)은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쌀과 함께 과일, 추석 명절음식 등을 후원받는다.

특히 쌀의 경우 실속 있고 저렴한 지역 내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다니 참고하자. 9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가위행사를

마련해 흥겨운 시간을 보낸 후 각 가정으로 배달한다.

해원 영도종합사회복지관(이사장 원희, 051-868-0138)은 복지관 및 해원정사 경내 모금함을 통해 의류, 생필품, 간식거리 등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물품을 후원받아, 10월 1일 해원정사에서 제수용품과 함께 후원물품을 전달한다.

진각복지재단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이사장 혜정, 051-271-0560)은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추석 명절 후원물품 전달 기금마련을 위한 ‘제9회 참마음 일일호프’를 개최한다.

9월 18일 하루 동안 하단오거리 사파이어호프전문점에서 실시되며, 차와 음료, 주류 등 다양한 먹거리와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넌 태어날 때부터 불자다”

‘동련’ 신임회장 심산 스님 “포교 100년 대계 준비”

“어깨가 무거워요. 동련 이사장이라고 하면 참 커다란 자리인데, 반면 우리나라 어린이포교에서 맡은 역할은 그만큼 크지 못한 현실이라 제 마음도 너무 무겁습니다.”

8월 27일 동련 임시총회에서 지낸 스님(부산 관음사 주지)의 뒤를 이어갈 신임회장으로 추대된 심산 스님(부산 흥법사 주지)은 평소 여러 법문에서 불교의 미래인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어린이법회에 위촉된 이유를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게요. 종교를 묻는 통계에서 100만 명 이상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 중에서 어린이법회에 참석하는 아이들은 만 명 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이법회와 포교 정책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심산 스님은 기존의 포교



동련 신임회장으로 추대된 심산 스님이 어린이를 안고 있다.

램 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어린이·청소년포교를 위한 범 종단 차원의 포교프로그램을 구성중이다. 현재 흥법사에서 성공 가능성을 내다본 ‘영·유아 수기법회’ ‘동자승 단기출가학교’ ‘마을상좌스님

의 유발상좌 되기’ 등이 그것이다.

스님은 “이웃종교에서 모태신앙이라 일컫듯 한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스님께 데려가 ‘너는 부처님의 뜻으로 태어난 불자다’라고 불자로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영·유아 수기법회’와 ‘동자승 단기출가학교’를 통해 인성 및 종교교육을 가르치고, 수기를 받지 못한 경우 ‘마을상좌’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찰의 스님과 인연을 맺어줄 수 있도록 개별사찰이 아니라 종단 차원에서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이 왜 사찰을 찾아오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이렇듯 타당한 타당공론

은 끝났다.

어린이포교의 새로운 백년대계가 동련과 종단, 전국교의 교구 분?말사와 주지스님 등 사부대중 모두의 어깨에 달려있다.

박지원 기자

부처님 법음 해조음으로 전해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김윤순 신임회장 취임

부산 불교합창단연합회 신임회장에 김윤순 단장(법어사 금강암 금소리합창단)이 선출됐다.



가운데 정여 스님(부산시불교연합회장), 재가불자 원주 김윤순 신임회장, 김귀련 직전회장, 그의 부산불교연합회 임원스님들.

부산 불교합창단연합회는 9월 4일 부산 코도모 호텔에서 회장 이·취임

법회를 병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을 증명법사로 발원문 낭독 경과보고 이임사 취임사 격려사 축사 법어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했다.

김귀련 전 회장은 이임사에서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가 크고 작은 사찰과 불교 행사 등 부산의 모든 법석에서 음성공양을 통한 법음홍포에

법음을 해조음으로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김귀련 직전회장이 5월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약 4개월간 회장직이 공석이었다.

(051)867-0501

박지원 기자

인도 수교 36주년 기념 대축제

18일, 인도공화국문화사절단 초청대공연

한국과 인도 수교 36주년을 맞아 양국의 전통 문화를 나누는 대축제가 부산에서 펼쳐진다.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 이하 부산불교신도회)는 인도공화국 주한대사관, 부산경남 인도명예총영사관과 공동으로 ‘인도공화국 문화사절단 초청대공연’을 개최한다.

9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부산 롯데호텔 3층 아트홀에서 마련되는 이번 공연에는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제3회 세계델픽대회에 참가한 인도국가대표팀이 직접 출연해 수준 높은 인도전통무용과 음악 등을 선사한다.

공연은 인도문화사절단의 인

도민속악기와 어우러진 민속무용, 클래식 무용, 갈라인도문화양상 등이며 한국전통악연주,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의 찬불가 합창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부산불교신도회는 부산경남 인도명예총영사관(대표 유진수)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인 만큼 더욱 의미가 깊다. 부산불교신도회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한국불교의 위상을 알리고, 문화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협력 및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051) 853-2021

박지원 기자

감로사 ‘반백년’

삼천배 관음참회기도

부산 감로사주지 해홍은 9월 21일 오전 10시 제3회 천일관음기도회와 함께 제4회 천일관음기도의 입제법회를 병행한다.

제4회를 맞은 관음기도법회는 1951년 한국전쟁 당시 자은 스님과 운하, 청담, 향곡, 성철, 백안 스님 등이 감로사에 모여 “3000배 참회기도의 힘으로 동족상잔의 국난을 극복하자”는 발원으로 3000배를 한데서 출발해 오늘에 이르렀다.

또 감로사는 오랜 숙원이던 ‘3000배 참회기도회관’ 건립법사를 착공하면서 불사의 원만회화와 국태민안, 신도 가정의 소원성취 등을 위해 제3회 천일관음기도의 회향과 동시에 제4회 기도회를 입제한다.

(051) 809-0926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많고 불경기에도 흥망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힘든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혼들어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첫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미미홍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클럽, 핸드폰점, 분당사무소, 인경점, 산발매점, 전자제품매점, 미용실, 방앗간, 공점, 주유소, 신제사교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영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볼게된다. 영주는 부처님께 예를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데안 악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와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쟁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쟁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지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병을 지키는 호신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

운전하는 가족친지에 사고예방의 선물 차량구입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다른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호신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미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어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같아요, 어머니는

시험을 보면 꼭 1~2점자로 낙방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년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고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목이 해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 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어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

점자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 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는 비방의 법구다.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력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 : 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불국토를 찾아서

참선도량 해운정사 제2회 3박4일 참선철야옹맹정진

“참선하면 갈등 사라진다”

3박4일이란 시간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향집 내려가기, 집안 구석구석 가을맞이 대청소, 가까운 이웃나라 해외여행, 보고 싶은 벗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지만 이들의 끝엔 항상 힘들고 지친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

말 잘 해내주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3박4일 참선철야옹맹정진은 하루 20시간을 참선하며 한숨도 잠자지 않은 채 참선에 매진한다. 말 그대로 ‘참’을 맹스려는 정진’이다.



부산 해운정사 대종이 옹맹정진 중인 모습.

만 막상 시간, 돈, 성공, 사사로운 고민 등과 같은 눈앞에 마주한 현실의 문제들로 어느 하나 선택하기 어렵다.

이런 우리에게 도원 스님(부산 해운정사)은 “누구나 시기, 질투, 불안, 공포와 같은 ‘마음의 갈등’은 갖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며 “마음의 갈등”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참선”이라고 조언했다.

마음속에 늘 단 하나의 화두를 들고 답을 찾으려 하다보면 ‘마음의 갈등’이 화두로 대체되면서, 나를 붙잡던 모든 것들이 망상이었음을 저절로 알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생들은 먹고 살기 바쁘게 청초하게 앉아 참선할 시간이 어디 있다고 불멘소리를 한다. 그래서 부산 해운정사(조실진제)에서 11월 1일부터 제2회 3박4일 참선옹맹정진 대법회를 개최한다. 지난 가을 전국에서 600여 명이 모여 3박4일간 뜨거운 옹맹정진으로 정진, 또 정진했다.

조실 진제 스님은 “600명이나 모였지만 도량에 3~4사람이 살 다간 듯 고요하고 일상분리하게 진행돼 낙오자 한 사람 없이 정

도원 스님은 “일반 재가불자들이 나흘간 참선을 한다고 해서 깨달음의 눈이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성불하는 데 큰 인연을 짓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참선철야옹맹정진법회의 가장 큰 특징은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가 한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참선한다는 것과 조실인 진제 스님이 직접 즉비 경책을 하며 언제든 의문점을 문답할 수 있도록 방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이다.

도원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를 외호하는 것만으로도, 성불의 큰 인연을 짓는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매년 음력 9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대법회는 올해에는 윤달이 끼여져 예년에 비해 한달 가까이 늦어져, 한층 더 깊어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또 부처님과 역대 조사스님 등 11불의 동상도 품격이 있으며 조성해 해운정사 도량 수행자들의 마음가짐을 다잡게 해줄 것이다.

(051) 746-2256, 4812

박지원 기자